

발간사

2022년은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30주년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볼 때 30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도약해 갈 수 있는 연령이지요. 지난 몇 년은 COVID-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이 지속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신 단국대 간호대학 학생, 동창, 직원, 교수님 등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드리며 올해 처음 단국간호 소식지 1호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간호대학은 학과 개설시 입학정원 40명에서 현재 112명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용 공간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성원들과 대학 본부가 협력하여 이번 9월 2학기부터 기존 실험연구동을 간호대학 별관으로 확장하여 강의와 실습을 하

고 일부 교수연구실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대학의 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COVID-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간호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보건료분야의 전문가들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문 간호학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와 1기 동문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 단국대 간호대학이 성실하게 비전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식지 발행에 애써주신 학과장님과 교수님들 특히, 기사와 편집에 참여한 학생동아리 H&I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과 협력하여 단국대 간호대학의 1호 소

식을 나누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모든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단국대학교 간호대학장 이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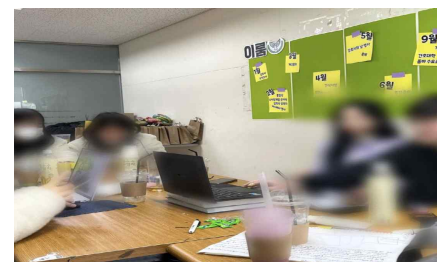
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문간호인의 사명과 윤리를 아로새기다

2월 21일(월) 본교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 강의실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 실습 전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서하는 숭고한 의식이다. 본 행사는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소수의 교직원과 대표 학생 15인의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선서식에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은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임상 실습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전문간호인으로서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선서식 이후,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총동문회에서는 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며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축하선물을 지급하였다.



신입생 랜선 만남, 신입생들과 소통의 장 개회



2월 21일, 22학번 신입생들과 만남의 장을 개최했다. 학생회는 COVID-19의 확산으로 직접 대면으로 만나 입학 축하해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신입생들과의 랜선 만남을 진행하게 되었다. 랜선 만남은 ZOOM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생활 및 간호학과 관련 영상 시청, 교수진 및 조교 소개, 학과장의 교육과정 및 1학년 지도 교수진 소개, 학생회 소개와 질의응답 등 신입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에 대해 학생회는 “많은 간호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저희 이름 간호대학 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학과 진로체험

7월 14일(목) 고등학교 연계 간호학과 진로체험이 실시되었다. 조윤희 학과장과 학생들은 천안 월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간호학과와 진로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천안월봉고등학교 학생들은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보호장구 착용, 피내 주사 및 정맥주사 체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본교 학생들은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 경험을 고등학교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감상을 밝혔다.

이종경 교수님 퇴임식 교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출발



8월 23일, 크리스 강의실에서 1999년부터 약 23년간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신 이종경 교수님의 퇴임식이 있었다. 이날 퇴임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경 교수님 약력 소개, 감사패 및 꽃다발 전달, 송별사, 학생회의 감사영상, 퇴임사,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본교 교수님과 대학원생, 학부생, 단국대학교병원의 동문 이신 이호경, 이현숙, 민연경 팀장님, 박유진

수간호사님, 황세리 책임간호사님이 참석하여 교수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숙 간호대학장은 “이종경 교수님이 만드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으로 승격된 이래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며, “퇴임하신다고 하여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과 계속해서 더 교류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송별의 말을 전했다.

이종경 교수님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졸업생들이 각기에 나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빛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기에 제 삶의 1순위는 학교였습니다.”라며 “어렵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의 23년이 보람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간호대학이 여러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6월 22일 단국대 간호대학에서 간호대학 특성화 장학금: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선발 명단을 발표하였다. 선발 기준은 전체 재학생 중 20명으로 포트폴리오 50%와 학년별 프로그램 50%를 합산한 결과이다.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비교과 활동, 봉사시간, 공인영어 성적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자기주도역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학년별 프로그램은 각 학년 별로 학과 홍보, 직업 탐구, 나이팅게일, 학과 생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의 교육 목표와 장기발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였다.

선발 결과 2학년 3명, 3학년 3명, 4학년 13명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전학년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태국 탐마삿 대학교와 MOU 기념 세미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국 간호대학... 학생들의 역량 향상 기회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일간 단국대학교 의학관에서 단국대 간호학과와 태국 탐마삿대학 간호학과(Faculty Of Nursing, Thammasat University)가 교류하여 진행하는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는 탐마삿 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기념하여 양 대학의 우호와 친선 도모 및 학술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학술 연구발표와 문화교류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양 대학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COVID-19 임상 간호사의 간호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우울장애 환자 대상 인터넷 기반의 지속적인 간호 개발 연구 ▲미혼여성의 출산능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보존 경험 연구 등 다양한 학술콘텐츠를 공유하였다.

연구발표 이후에는 문화교류 일정이 이어졌다. 탐마삿 대학에서는 태국의 전통춤과 음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리 대학에서는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를 진행하였다. 본교 간호대학과 탐마삿 대학이 함께 팀을 이뤄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세미나에 참여한 양 대학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탐마삿 대학과의 MOU를 계기로, COVID-19에 의해 2년 넘게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단국대 간호학과와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단간의 발걸음

홈커밍데이

11월 9일 17시에 의학관 크리스 강의실에서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30주년을 기념하여 1기 졸업생을 초청하는 ‘홈커밍데이’가 진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동문들의 노력으로 일궈진 발전기금 증서 기부식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단국인 및 공로상 시상 등이 있을 예정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동문회의 발전기금 중 일부는 간호대학 별관 110호의 스마트강의실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

간호대학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1월 9일 12시 50분에 개최된다. 국내외 간호학, 의학 및 교육학 분야의 교육 전문가 및 동문 강연을 통해 간호교육의 현재와 인접 학문분야 교육의 최신지견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 교육의 지향점과 미래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후배 멘토링, 개강 후 설렘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간호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선후배 멘토링 '개강 후 설렘'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6명씩 팀을 이뤄 진행되었으며 1단계는 단일팀, 2, 3단계는 두 팀씩 연합팀을 이뤄 진행되었다. 지난 2년간 COVID-19로 선후배간 대면 만남이 어려웠던 만큼 본 행사를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선후배 간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와 멘토링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1단계 '안녕 반가워!'는 조장, 조 이름 및 구호를 정하는 간단한 미션으로 개강 후 설렘이 시작되었다. 2단계 '다 같이 파이팅!'에서는 연합팀으로 진행되어 사진찍기, 벨런스 게임 등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3단계 '공부도 함께! 아자아자!'에서는 구글 Meet를 통해 랜선 스터디와 선후배 간 학업 관련 Q&A 시간을 가졌고 우수 팀에게는 시상이 이루어졌다.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사의 날 행사 '포스 투 널스' 진행

5월 12일,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회에서 간호사의 날 대면 행사로 '포스 투 널스'를 진행했다. 위 행사는 의학관 크리스 강의실 복도에서 진행되었으며 '나에게 간호사란?' 또는 '간호사 삼행시'를 포스트잇에 학번과 이름을 함께 적어서 학생회 거울에 붙이는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9명이 당첨자로 선발되었으며 상품인 간호사 배지를 수령하였다. 위 행사를 통해 간호사의 사회적 공헌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간호사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학축제 대동제, 간호대학 부스 운영 "추억의 문방구". "커플 매칭"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단국대 대동제에서 우리 간호대학은 '추억의 문방구'와 '커플 매칭'을 소재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식혜와 같은 음료와 다양한 먹거리, 뽑기, 잡화 등 여러 활동으로 구성된 추억의 문방구는 축제의 많은 부스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참가비를 내고 제공되는 종이에 학과, 나이, 전화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다른 사람과 매칭이 되는 '달콤한 커플 매칭' 활동을 진행해 축제에 열기를 더했다.



대학원

단국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졸업 결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일반대학원과 보건복지대학원 노인전문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2년 기준 일반대학원 재학생 25명(석사 17명, 박사 8명)으로 현재까지 총 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보건복지대학원은 재학생 10명으로 현재까지 총 54명이 졸업하였다.

2022년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석사 학위논문]

▶ 안준석(Ahn, Junseok), 청소년의 부모돌봄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Influences of Adolescents' Parental Caring Awareness,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for male middle school students

[박사 학위논문]

▶ 오은희(Oh, Eunhee), 정신간호사 역할 적용 모델 구축 Structural model for role adaptation of psychiatric nurses

▶ 김래완(Kim, Raewan), 만성요통 환자의 건강행위이행 구조모형 : 자기결정성이론 기반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Health Behavior Compliance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대학원 재학생 Q&A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과 병동 5년차 간호사이자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 1학기 재학 중인 신소정 동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대학원 지원 절차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년 상·하반기 간호부에서 대학원을 포함해 각종 학업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부서장님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신청서(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를 작성합니다.

Q. 대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인이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들 대부분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공부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간호사로 근무하며 대학원공부를 할 수 있는지(학교까지 왕복 소요 시간, 금전적 부분, 부서 내 근무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해야 합니다.

Q. 대학교와 대학원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원은 아무래도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원은 학사보단 확실히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특정 주제에 대해 공부, 연구해오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현재 1학기 중으로 3개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주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수님은 다음 수업 전 혼자 공부해오고 레포트 제출하는 식으로 매주 과제를 내주시고, 수업 전 퀴즈를 보기도 합니다. 또 전공필수 간호연구학 과목은 논문 쓰는 연습 및 이론 공부하는 수업으로 매주 조금씩 본인 논문의 특정 항목(예를 들어 연구배경/연구설계/연구 대상자 선정 등)을 하나씩 추가해오는 식으로 과제를 내주십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중간고사라고 모든 과목을 시험 보진 않습니다. 어떤 과목들은 레포트 제출이나 발표물 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Q. 대학원 재학과 관련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무하며 공부를 하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 체력적 문제가 큼니다. 매달 근무신청을 해야하니 그 외 근무신청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 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읽어보거나 하고요. 매일 조금씩 과제를 하려 노력해요.

Q.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직업같아요. 임상에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연차가 올라가면 멈춰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석,박사 공부=교수를 하려 하는 것'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학교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발전을 위해 계속 공부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동문회

동문회장 인사말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제9대 동문회장 이영희입니다.

단국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동문님들은 인간애와 간호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라는 교육이념에 맞추어 유수의 병원과 교육현장,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인 인간 이해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지도자적인 전문가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간호학과 동문회는 1996년 4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듬해인 1997년 창립되었습니다. 2002년 간호학과 개설 10주년과 2012년 20주년 행사에는 동문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흉상 건립, 발전기금 전달, 국제

학술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고, 어느덧 2022년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이 계셨기에 지금껏 동문회의 발전과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회의 활동에 원동력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열정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동문회는 앞으로도 재학생, 졸업생에 대한 지원 및 모교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단국 간호인으로서 자긍심과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가는데 동문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 활동 소개

1 월

• 간호사 국사고시 지원 및 참석

2 월

• 나이팅게일 선서식 참석 및 장학금 수여
• 졸업식 참석 및 동문회장상 수여

5 월

• 스승의 날 기념 모교 방문 및 선물 증정
• 모교 간호대학 축제 지원 및 참석

11 월

•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 모교 간호대학 Homecoming Day 지원 및 참석

수시

• 동문 및 재학생 활동 후원 및 학술연구 지원
• 모교의 중요행사 및 발전사업 후원

8월의 인물, '이영희' 동문회장, '김기애' 부회장

8월의 이달의 인물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의 이영희 회장님, 김기애 부회장님입니다. 이영희 회장님과 김기애 부회장님께서 모교와 간호학과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동문회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어 현재까지 많은 동문회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영희 회장님, 김기애 부회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Q.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는 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병원 62병동에서 임상생활을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95학번 이영희입니다.
B.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97학번 김기애입니다.

Q. 동문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 A. 부회장으로 오랜 기간 동문회 관련으로 일하다가 애교심이 생겨 자연스레 20주년 때부터 동문회장을 물려받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 이영희 회장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동문회 관련 행사를 많이 데려다주시면서 후배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또한 후배들을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동문회에서 진행했던 행사 중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신가요?

A. 20주년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선후배님, 저와 함께 했던 동문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행사였고, 나이팅게일 동상과 후배들을 더욱더 양성하고 싶은 마음에 모인 기부금 5,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하는 행사로 동문회에서 진행했던 가장 큰 행사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Q.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사업의 기획 및 구상, 진행에 대해 동문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B. 동문회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동문회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감정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Q. 동문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선후배, 동기를 넘어 간호학과 간 교류가 많은 동문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문회들끼리 활동한 내용을 업로드하거나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실행과는 거리가 있어서 생각만 해보고 있습니다. (웃음)

B. 간호학과 동문회가 재직 동문회 중심이지만 이를 넘어, 간호학과를 졸업한 모든 동문들 간의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A: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와 여기 계신 부회장님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 주시면 동문회에 있는 모든 임원들은 베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기를 바랍니다.

9월의 인물, 24기 대표 김단비 이사

9월의 이달의 인물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에서 24기 기수 대표를 맡고 계신 김단비 이사님입니다. 김단비 이사님께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2019년에 졸업하시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임상에서의 실제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단비 이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5학번으로 졸업하여 현재 단국대학교 암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단비라고 합니다.

Q. 동문회 이사회의 일원이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학생회 출신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쳐서 자동적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교에 애정이 많아요.

Q.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동문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졸업 후에 단대병원에 오게 된다면 선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커넥팅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Q. 동문회를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 때문에 동문회 일을 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 11월에 있을 홈커밍데이가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단국대학교병원에 취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서울에 있는 병원도 합격하긴 했지만, 제가 병원 취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Q. 단국대학교병원에 취업한 후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A. 취업 후 힘든 일은 역시 신규 때 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들도 다 처음이 있었을거라 생각하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A. 기억에 남는 일화는 많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신규 때 제가 투약 실수하고 많이 자책하며 울고 있었는데 프셉 선생님이 괜찮다고 같이 울어주시게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생님도 많았지만 프셉 선생님이 제 편이라고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A. 돌아보면 각 학년마다 매년 겪었던 경험도, 생각했던 고민도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연강인 교양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 2학년 때는 이제 술을 공부해야 하는데 더 놀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3학년 때는 실습하는게 피곤하다는 생각과 ‘전공을 이렇게까지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4학년 때는 다들 국시 합격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중 떨어지는 사람이 나면 어쩌지’하는 걱정과 동시에 면접 준비,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말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몇 학년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날의 저처럼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생활하고 있겠죠?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만약 내 적성에 맞았다면, 그리고 원하는 병원에 취직을 했다면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힘들었고 “진짜 그만둬야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1학년 때부터 치열하게 생활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임상에 있는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고 뿌듯하거든요. 꼭 임상이 아니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다양한 길이 많으니 다들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이달의 인물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에서 25기 기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지애 이사님입니다. 박지애 이사님께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2020년에 졸업하시어 최근 졸업하신 선배님으로서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조언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지애 이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Q.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16학번 박지애입니다. 간호사로 근무한지는 25병동에서 1년, 21병동에서 반년 정도로 총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Q. 25병동과 21병동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A. 25병동, 21병동 모두 내과 병동이지만 25병동은 심혈관, 심장 쪽이 주된 곳이고 21병동은 호흡기 전담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동문회 이사의 일원이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A. 25병동에 있었을 때 동문회장 선배님과 같이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기수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Q. 타 병원이 아닌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타 병원도 최종합격까지 했지만 단국대학교병원이 적응하기 편하고 심적으로도 편할 것 같아서 단국대학교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때 전산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국대학교병원의 전산에 비교적 익숙하고 병원의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서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취업하셨을 당시의 스토리와 팁들 들려주세요!

A. 단국대학교병원이 영어 성적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토익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갈 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자기소개서는 4학년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의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찾아보며 어떤 내용들을 적을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자소서 첨삭을 해주니까 이 점을 많이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3차 병원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 경로는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제약회사, 공무원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병원 이외의 곳에 취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는 후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알려주고 싶은 꿀팁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A. 알바 및 대외활동같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회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의 방법들을 알아가며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선배님과 고민거리를 나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간 톡톡! 일문일답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 학생들의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담은 인터뷰가 지난 9월 말 진행되었다. 남학생부터 교직 이수 학생까지, 이들이 전하는 다양하고 생생한 수업 후기와 학교생활 팁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자.

간호학과 1학년 22학번 박민혁 학생

“환자와 보호자를 미소 짓게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입학 전 상상/로망과 실제 학교생활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나요?

A. 입학 전 상상했던 것처럼 다양한 전공과 연령, 출신지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의 높은 학구열은 예상하지 못해 크게 놀랐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직 이수와 상위등수를 노리고 있었고, 덕분에 저도 뜨거운 학구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반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A. 학교생활을 통하여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었던 과목을 공부하니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대학교 특성상 새로운 캐릭터의 사람들을 여러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 덕분에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미래에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 환자와 보호자를 미소 짓게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로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안심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간호사라면 그들의 미소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21학번 양은미 학생

“병동에서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날이 기대됩니다”

Q. 교내 실습과 관련된 팁이나 조언,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A. 첫 실습이라 긴장도 되겠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핵심 술기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수님과 조교님 앞에서 술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지침서에 글로 적혀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이리닝에 올려주시는 영상을 계속 보고, 머릿속으로 술기 과정을 반복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오픈랩 시간에 더 연습해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가면 좋아요. 예를 들어 유린백을 침상 옆에 고정할 때, 연결된 부분이 꼬이거나 난간 위로 올라가 소변이 역류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여쭙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질문하세요!

Q. 병원 실습을 앞두고 기대되는 점이 있나요?

A.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볼 수 있고, 대상자와 실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습과 이론을 한 학기에 진행하다 보니 체력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Q. 인상깊은 수업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A. ‘알기쉬운 의학용어’를 추천합니다. 전공선택 과목으로 의학용어가 있는데, 이 전선 과목을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듣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교직을 듣게 되는 학생이라면, 교육심리와 교육평가를 추천합니다

간호학과 3학년 20학번 김서현 학생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Q. 실습할 때의 팁들이 있나요?

A.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사실, 처치실에도 따라가서 열심히 배우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활력징후나 ABGA, 혈청검사와 같은 임상검사의 정상 수치 정도는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학교 수업 말고 다른 동아리 활동 혹은 대외활동 등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A. 과동아리 스포팅게일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아리로 타렉트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빌리지, 원어민튜터링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으니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Q. 교직이수를 하며 배운 것들과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해주세요!

A. 교육체계의 방식,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지 알게 되었고, 머리를 식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직과 전공 성적과 함께 챙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현재까지 교직 이수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기회가 있다면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실습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아동간호학1실습에서 덴버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환아를 선택하여 활동을 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맡았던 환아의 언어발달이 또래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던 아동이라 라포를 쌓고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힘든 환아와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 19학번 류의정 학생

“본인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Q.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 및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이 있나요?

A. 4학년 때는 취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는 친구들과 함께 자소서랑 면접 피드백도 하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 취업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나요?

A. 취업 준비를 하다보면 병원마다 채용시기가 천차만별이라 지원하는 병원의 채용 시기가 늦어서 다른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때 정신이 많이 흔들리는데 본인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Q. 추천하는 봉사활동이나 자격증 및 도서가 있으신가요?

A. 요양병원이나 간호랑 관련된 봉사활동이 나중에 자소서에 녹여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BLS는 기본적으로 따두는 것이 좋고 시간이 많다면 컴퓨터 활용 자격증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생활 및 활동이 있으신가요?

A.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 간호 관련 동아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어떤 동아리든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꾸준히 인연을 이어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